

# 1764年作 長興寺地藏十王圖 試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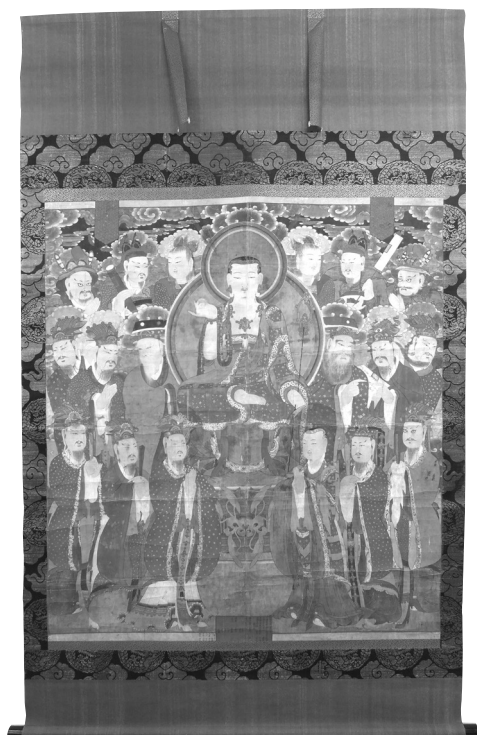
김소연\*

- I. 머리말
- II. 작품의 현상과 화기
- III. 포관과 그의 작품 활동
- IV. 장흥사와 관련 기록
- V. 장흥사와 불국사의 관계
- VI. 맺음말

## I. 머리말

독일의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Köln)에는 조선시대 불화로 분류된 지장시왕도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도 1). 아직 전시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이 작품은 지장보살과 그를 둘러싼 권속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보존 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그림의 하단부 붉은 구획란 안에는 화기(畵記)가 거의 온전히 남아있어 조성 시기와 화사, 봉안처 등 불화 조성과 관련된 내력을 알 수 있다. 쾰른 동아시아 박물관은 1764년에 조성되어 ‘장흥사 내원암(長興寺內院庵)’에 봉안되었다고 적혀있는 이 작품(이하 <장흥사 지장시왕도>)을 1993년에 구입했는데, 그 이전에 이 작품이 어떤 경로로 원 봉안처인 장흥사를 떠나 독일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박사수료



도 1 장흥사 지장시왕도, 1764년, 마본채색,  
165.3×146.7cm, 독일 쾰른 동아시아박물관

러 근데 존재했던 만큼, 정확한 봉안처의 비정과 그에 대한 조사는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본고에서는 『월생산장흥사고적기(月生山長興寺古蹟記)』와 경주지역 지도를 바탕으로 작품의 봉안처인 경주 단석산 장흥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V장에서는 작품의 화기와 관련 자료들을 통해 드러나는 지역 사찰간의 교류를 조명함으로써 이 작품의 제작 배경에 특정 화승, 혹은 화승집단을 넘어 더 넓은 범위의 사찰 간 교류 및 연계가 존재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기년명 지장시왕도의 새로운 일례인 이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현상과 화기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작품의 봉안 장소와 화승, 그리고 그가 활동한 사찰과 지역 공동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II장에서 작품의 전체적인 양상과 주목할 만한 도상적 특이점, 화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작품을 그린 화승과 화풍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불화승 연구에 있어서 누군가의 새로운 작품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연구를 통해 구성된 그의 포트폴리오가 확장됨을 뜻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존에 알려졌던 그의 생애와 이력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수도 있다. III장에서는 〈장흥사 지장시왕도〉가 수화승 포관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IV장에서는 작품의 봉안처인 장흥사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장흥사’라는 명칭의 사찰이 여

## II. 작품의 도상과 화기

높이 165.3cm, 폭 146.7cm의 장방형에 가까운 화폭에는 중앙의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여러 권속들이 짜임새 있게 좌우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승형의 지장보살은 왼손에는 석장을,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푸른색 연화대좌 위에 앉아있다. 지장보살의 대좌 양 옆에는 무독귀왕과

도명존자가 합장을 하며 서 있는데, 지장보살의 권속 중 이들만 두광을 두르고 있다. 지장보살 삼존의 양쪽에는 시왕이 5존씩 배치되어 있다. 지장보살과 가장 가깝게 자리 잡은 제5 염라대왕과 제8 평등대왕은 작변(爵弁)을 쓰고 있는 반면, 다른 시왕들은 통천관(通天冠)을 쓰고 있다. 위쪽으로는 사자와 판관, 천동, 천녀가 나타난다. 두 번째 줄과 마지막 줄의 권속들 뒤쪽으로는 녹색과 적색, 노란색의 구름이 피어오르고 있다. 채색은 녹색과 적색, 청색을 주조로 하였다.

이 작품에서 특이한 점은 대좌 앞쪽의 연잎줄기 모티프이다(도 2). 지장보살의 대좌 앞쪽, 무독귀왕과 도명존자 사이에는 연잎줄기 덩어리가 그려져 있다. 네 개의 큰 연잎과 두 개의 작은 연잎이 중앙으로부터 뻗어나오는 구불구불한 줄기에 좌우대칭으로 달려 있고 가운데에는 당초문 모양의 잎사귀들이 역시 대칭으로 나타나 있다. 그 생김새가 매우 형식적이고 장식성이 강하여 대좌의 연꽃에서 확장된 것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색하다. 연꽃과 별개로 대좌 앞 공간을 채우기 위해 그려진 장식 모티프에 가까워 보인다. <장흥사 지장시왕도>가 지물 묘사와 권속 구성 등에 있어서 동시대에 널리 통용되고 있던 지장시왕도의 도상을 대체로 따르고 있는 반면, 이 독특한 연잎줄기는 다른 작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모티프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sup>1</sup>

이와 관련하여 16세기의 작품 중 일본 이야다니지(彌谷寺) 소장 <지장시왕도>(1546년)(도 3)와 탄조지(誕生寺) 소장 <지장시왕도>(1582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다니지본의 지장보살의 대좌 앞에는 개화하지 않은 연꽃 봉우리 한 송이가 넓적한 연잎들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탄조지본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연잎이 달린 연꽃 봉우리 두 송이가 대좌 앞에 솟아있는데, 두 꽃송이가 비대칭적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다. 한 송이는 봉우리의 형태이고 다른 한 송이는 꽃잎이 벌어져 있다. 이 두 작품에 나타난 연꽃은 앞



도 2 도 1의 세부

<sup>1</sup> 이 작품과 같이 지장보살, 시왕, 기타 권속으로 구성된 형식은 지장보살도의 형식 중 가장 애용된 형식으로, 고려 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일지사, 1996), p. 209.



도 3 이야다니지 지장시왕도, 1546년, 마본채색, 138.1×128.3cm, 일본 이야다니지(彌谷寺) (출처: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도 4 홍천사 지장시왕도, 1867년, 견본채색, 158.2×220.7cm, 서울 홍천사 극락보전 (출처: 유경희, 『조선 말기 홍천사와 왕실 발원 불화』, 『강좌미술사』 49, 도 5)

과 즐기, 꽃봉우리까지 모두 갖추었는데, 연화대좌에서 확장되거나 대좌에 나타난 연꽃 문양이 아니라 독립된 모티프이다. 대좌 앞의 연꽃이 지장시왕도에서 어떤 도상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 수 없다. 연꽃은 여러 불보살의 도상에 보편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모티프이기 때문이다. 이 연꽃 모티프가 동시대의 모든 지장시왕도에 나타나는 도상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전과 관계없이 특정 화파나 지역에서 유행한 모티프일 가능성이 있고, 혹은 두 발이 각각 연화좌를 밟고 있는 답할좌(踏割座)의 변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조선 후기에는 상단의 연꽃과 하단의 기대가 결합한 형태였던 연화대좌가 연출기형으로 변한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기존 연화대좌가 기대 위에 연꽃송이만 올라간 형태였다면, 연출기형 대좌는 기대 없이 땅에서 연출기가 솟아나고 그 위의 만개한 양련 위에 본존이 앉아있는 방식이다. <원광사 영산회상도>(1791년)과 <홍천사 지장시왕도>(1885)(도 4)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화면 하단부 땅(원광사본의 경우, 해수면)에서부터 솟아오른 거대한 연출기의 양 옆으로는 좌우대칭으로 당초문 모양의 잎사귀가 돌아나 있다. 넓적한 연잎은 보이지 않는다. 꽃 부분은 본존의 대의에 거의 가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 역할을 하는 줄기와 잎사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러한 연출기형 대좌는 19세기에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였고, 이후에는 다른 지역에게까지 확산되었다.<sup>2</sup> 이러한 형태의 대좌에는 본존이 앉아있는 연꽃 외의 다른 연꽃봉우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줄기와 줄기에서 돌아난 화려한 잎사귀들만이 기존에 대좌가 위치했던 공간을 채우고 있다. 이러한 연출기형 대좌는 앞서 예로 든 작품들에서 보듯이 지장시왕도 뿐

아니라 영산회상도 등에도 종종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여러 불보살에 통용 가능했던 보편적인 대좌 형식 중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연잎줄기 모티프는 조선 전기의 연꽃봉우리 모티프나 조선 후기의 연줄기형 대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좌와 분리된 별개의 모티프로 보인다는 점에서는 전자와 유사하면서도, 연잎과 줄기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는 후자와 비슷하다.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연잎줄기 모티프와 시각적으로 가장 유사한 예는 〈동화사 지장시왕도〉(1841)(도 5)에서 찾을 수 있다. 지장보살이 앉아있는 중앙의 공간을 시왕을 비롯한 권속들이 삼각형의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독특한 도상의 작품이다. 중앙의 낮고 넓은 단 위로 연꽃이 솟아있고 그 위에 본존이 앉아있는 연줄기형 대좌의 일레이지만, 앞서 살펴본 작품들과는 달리, 본존이 앉아있는 연꽃 외에도 두 송이의 연꽃이 줄기에서 뻗어 나와 있다. 그리고 원광사본 등에서 보았던 당초문 모양 잎사귀 외에도 넓적한 연잎이 대칭으로 나 있다. 비록 꽃의 유무는 다르지만, 좌우 대칭의 형식과 연잎의 모양은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연잎줄기와 흡사하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대좌를 장식하는, 혹은 대좌 역할을 하는 연꽃, 연잎줄기 모티프는 꾸준히 여러 갈래의 형식으로 등장했다. 전무후무한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연잎



도 5 동화사 지장시왕도, 1841년, 견본채색, 122×139.5cm, 대구 동화사 염불암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도 256)

<sup>2</sup> 김수영, 「19세기 경북지역 석가여래후불도 연구」, 『문물연구』 20 (2011), p.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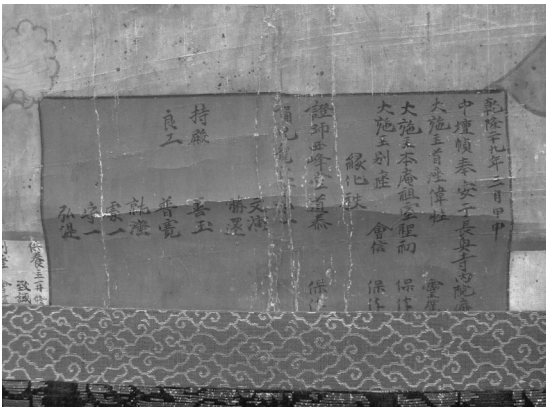
줄기는 이 여러 갈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도상적 기원은 알 수 없으나, 특정 도상에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전적 근거가 있기 보다는 지역 화풍이나 화파를 중심으로 나타난 장식 모티프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한편 화면 아래쪽 중앙의 붉은 사각 구획란 안에는 묵서 화기가 쓰여있다(도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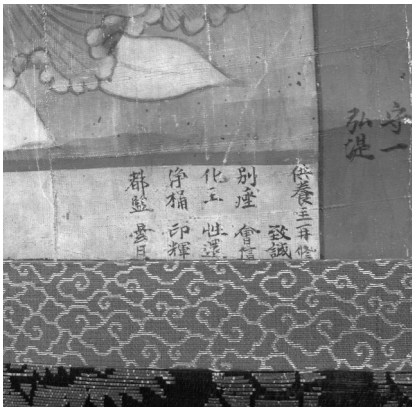
乾隆二十九年三月甲申	文演
中壇幀奉安于長興寺內院庵	勝還
大施主首座偉性 靈駕	持殿 善玉
大施主本庵祖室聖初 保體	良工 普寬
大施主 別座 會信 保體	就澄
緣化秩	處一
證師西峰堂道泰 保體	守一
誦呪□□堂□一	弘湜

화기에 따르면 이 작품은 건륭 29년(1764년) 장흥사 내원암에 봉안된 중단탱화(中壇幀畫)이다. 화기가 적힌 구획란 옆에는 묵서가 적혀있는데, 그림을 보수하며 추가한 기록으로 보인다(도 7).

供養主 再修	化主 性還
致誠	淨桶 印輝
別座 會信	都監 曇日



도 6 도 1의 세부



도 7 도 1의 세부

이 목서가 언제 기록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앞서 화기에서 시주자로 등장하는 회신이 다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림이 제작된 1764년으로부터 그다지 오래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추정된다.

### Ⅲ. 포관과 그의 작품 활동

화기에 따르면 <장흥사 지장시왕도>를 그린 이들은 보관(普寬), 취징(就澄), 처일(處一), 수일(守一), 홍식(弘湜)이다. 가장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어 수화사일 것으로 보이는 보관은 ‘抱寬’ 혹은 ‘抱冠’으로도 표기되는 화승 포관으로 추정된다.<sup>3</sup> 포관은 18세기 중반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화승으로,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다. 지금까지 밝혀진 불화들의 화기를 토대로 포관의 작품 활동을 추적해보자면, 초기에는 경상도에서 활동했던 화승 임한(任閑)의 보조화승으로 작품 제작에 참여하였다. 1755년 작 <운문사 삼신불도>, <운문사 삼장보살도>와 1759년 작 <통도사 석가모니불도>가 그 예이다. 이후 1760년대에는 임한에게서 벗어나 불국사의 불사에 참여하였고, 1770년대에는 수화사가 되어 <통도사 약사불도>, <통도사 팔상도>와 같은 작품을 제작하였다.<sup>4</sup>

보조화승에서부터 시작하여 수화사로 이름을 남기기까지 포관이 제작에 참여한 불화는 현재까지 10여점 이상이 확인된다. 그 중 1764년에 그려진 <장흥사 지장보살도>와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작품은 1769년에 제작된 <불국사 영산회상도>(도 8)와 이와 함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천왕 벽화>(도 9)이다. 포관은 <불국사 영산회상도>의 화기에 ‘도금양공비구(塗金良

3 화승 임한의 주도(首頭)로 제작된 운문사의 <삼신불도>와 <삼장보살도>의 화기에는 ‘抱寬’과 ‘普寬’이 각각 보조화사로 등장한다. 두 작품이 1755년에 임한과 그 제자들에 의해 함께 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抱寬’과 ‘普寬’은 동일 인물의 다른 표기로 보인다. 포관 이외에도 수운과 태일이 각각 ‘秀雲’과 ‘醉雲’, ‘泰一’과 ‘太日’로 표기되었다. 이들이 모두 동일 인물의 다른 표기라고 한다면 두 작품의 참여 화사의 목록은 정확히 일치한다. 한편 1769년 불국사의 <영산회상도>와 <사천왕 벽화>, 1775년 통도사 <팔상도> 등의 화기에 기록된 ‘抱冠’ 역시 임한과 일원으로 운문사 불사에도 참여했던 유성(有誠)과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앞의 작품들에 기록된 抱寬 혹은 普寬의 또 다른 표기로 보아도 될 것이다. ‘抱冠’은 유성과 함께 임한의 뒤를 이어 통도사의 여러 불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임한의 화풍과 포관, 유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용윤, 『조선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pp. 111-112 참조.

4 포관의 생애와 작품에 관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역대서화가사전』 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p. 2341-2345을 참고하였다.



도 8 불국사 영산회상도, 1769년, 견본채색, 498×447cm, 경주 불국사 대웅전 ©문화재청  
 도 9 사천왕 벽화 중 동방 지국천과 남방 증장천, 1769년 추정, 벽화, 419×188cm, 경주 불국사 대웅전 ©문화재청

工比丘) 명단 중 다섯 번째로 등장한다. 그리고 <불국사 영산회상도>의 양 옆에 자리한 <사천왕 벽화> 중 동방 지국천과 남방 증장천을 그린 향좌측 벽화는 포관이 단독으로 제작하였다.<sup>5</sup> <불국사 영산회상도>의 경우, 수화승 지척(智瞻)을 비롯한 여러 명의 화승이 참여했고, 그 가운데 포관은 '도금양공'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화풍이 얼마나 반영이 되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가 홀로 그린 <사천왕 벽화>는 밝고 부드러운 채색이 눈에 띄는데, 이는 그가 수화승으로 참여한 <장흥사 지장시왕도>와 1775년 <통도사 약사불도>, <통도사 팔상도>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지금까지 포관은 그가 참여한 작품들의 화기를 통해 1770년대 이후부터 수화사가 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공주, 상궁 등 왕실 인사까지 시주에 참여한 1769년 <불국사 영산회상도>, <사천왕 벽화> 불사에서, 포관은 단독으로 사천왕도의 한 축을 맡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 명의 양공비구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장흥사 지장시왕도>는 이보다 5년 전, 5명의 화승이 참여한 소규모 불사에서 포관이 이미 스승을 떠나 수화승의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sup>5</sup> 불국사 <영산회상도>와 <사천왕 벽화>의 화기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동산문화재분과」(2013), pp. 883-886을 참고하였다.

포관과 함께 <장흥사 지장시왕도> 제작에 참여한 보조화승들도 다른 작품의 화기나 관련 기록에서 이름이 발견된다. 화기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취징은 『통도사지(通度寺誌)』의 『팔상기문(八相記文)』(1775)에 포관과 함께 양공으로 기록되어 있다.<sup>6</sup> 포관이 이끌었던 화승집단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포관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처일은 1755년 <운문사 삼신불도>와 <운문사 삼장보살도>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는데,<sup>7</sup> 19명의 화승이 참여한 이 작업에는 포관도 보조화승으로 참여했다. 즉 운문사 불사의 처일은 포관의 스승 혹은 선배인 셈이다.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화기에서는 반대로 포관이 첫 번째, 처일이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다. 운문사의 처일과 장흥사의 처일이 동명이인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후 설명할 이 작품의 양식적 요소로 보아 동일 인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네 번째 화승으로 기록된 수일은 임한, 두훈(料訓, 料薰, 혹은 斗熏) 등과 함께 통도사에서 불사를 하고 1767년 범어사의 <의상대사진영>을 단독으로 제작한 화승 수일(守一 혹은 守日)일 것이다.<sup>8</sup> 포관과 수일은 1759년 임한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통도사 불사에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다.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화풍은 이 작품이 제작되던 18세기 중반 경상도 지역에서 활동하던 포관이 스승 임한을 통해 연결된 다른 화사들과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작품에서 포관은 기존의 특정 화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화사들의 작품들에서 일부 요소들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본존인 지장보살의 두상은 다소 길고 각진 편이다. 눈은 길고 가늘며 눈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갔다. 입술은 일자에 가까운데 색은 다소 흐릿하다. 입술에 비해 코가 크게 묘사되어 있다. 신체는 세장한 편으로, 오른쪽 팔은 수직에 가깝게 들어 올려 보주를 쥐고 있다. 왼쪽 팔은 석장을 조금 아래로 내려잡아서 석장의 끝이 본존의 신광 부분에 위치한다. 권속들도 본존과 마찬가지로 얼굴과 신체가 세장한 편이다. 동시대의 다른 지장시왕도와 마찬가지로 권속들이 지장보살을 둘러싼 군도식 구도이나, 권속들이 비교적 크게 그려져 있어, 본존과 권속간의 위계가 덜 두드러진다. 색조는 적색과 밝은 녹색을 주조로 하였다. 대체로 밝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색채의 대비가 크지 않다. 이는 18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색채가 탁하고 대비가 강한 다른 불화들과는 다른 양상이다.<sup>9</sup> 의복에는 잔잔한 동심원문,

6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위의 책, p. 2133.

7 임한이 '수두(首頭)', 즉 제작 전반을 주관한 인물이었다면, 실질적인 주체는 '경화(敬畵)'라는 호칭을 사용한 처일이었다. 이용윤, 위의 논문, p. 111.

8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역대서화가사전』 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p. 1035.

9 김정희, 『18世紀 地獄系 佛畵의 研究』, 『불교미술사학』 3·4 (1997), pp. 52-53.

국화문 등이 보인다.

세장한 신체, 비교적 크게 그려진 권속 등은 동시대의 다른 불화에서 유행하던 요소는 아니었다. 조선 후기의 본존은 대체로 신체가 건장하고 상호가 원만한 예가 많다.<sup>10</sup> 한 예로 <장흥사 지장시왕도>과 같은 해에 그려진 <장육사 지장시왕도>(1764년)를 살펴보자(도 10). 이 작품은 포관과 마찬가지로 임한파 화사 중 한 명이었던 두훈이 수화사가 되어 제작한 작품이다. 채운의 표현, 본존의 발제선 등에서 <장흥사 지장시왕도>와 유사한 점도 보인다. 그러나 본존에 비해 확연히 작은 권속들의 크기, 본존의 당당한 신체와 원만한 얼굴, 얼굴에 비해 작은 눈, 코, 입 등은 이 작품 뿐 아니라 다른 동시기 불화에서도 자주 보이는 양식적 특징으로, 포관의 화풍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인물들의 얼굴 표현이나 본존의 자세 등은 앞서 언급한 처일의 <운문사 삼장보살도>(1755년) 중 지장보살도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양식적 특징은 포관이 이후에 그린 동일 주제의 작품과 비교했을 때 더 잘 드러난다. 현재 전해지는 불화 중 포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비슷한 도상의 작품은 <장흥사 지장시왕도>이 그려진 지 14년 후인 1778년에 제작된 <은해사 백련암 지장보살도>가 유일하다. <은해사 백련암 지장보살도> 역시 지장삼존과 시왕, 권속들로 이루어진 구성이지만 등장 인물의 수는 <장흥사 지장시왕도>에 비해 더 많다. 큰 코와 가늘고 긴 눈 등 전체적인 안면 표현은 유사하나 본존의 얼굴이 <장흥사 지장시왕도>에 비해 짧고 둥글어졌으며 입술은 또렷해졌다. 신체는 이전 작품보다 당당하게 묘사되었다. 보주를 왼 팔은 사선을 그리고 있고, 역시 사선으로 왼 석장의 머리 부분은 본존의 이마까지 뻗어있다. 권속들 역시 세장함이 줄어들고 얼굴도 이전에 비해 둥글게 표현되었다. 인물의 수가 늘어난 만큼 권속의 크기도 줄어들었고, 뒤로 갈수록 인물의 크기가 줄어



도 10 장육사 지장시왕도, 1764년, 188×191cm, 경북 영덕 장육사 대웅전 ©문화재청

<sup>10</sup> 김정희, 「朝鮮後期の佛畫 - 特徵과 樣式, 그리고 研究課題」, 『불교미술사학』 5 (2007), p. 335.

드는 원근법이 적용된 점도 눈에 띈다. 의복 문양이나 본존의 귀걸이 표현 등은 <장흥사 지장시왕도>와 매우 유사하다. <은혜사 백련암 지장보살도>의 도상과 화풍은 이 작품의 제작 전후에 그려진 홍익대학교 소장 <지장시왕도>(1750년)와 <통도사 백운암 지장시왕도>(1801년) 등에서도 볼 수 있다.<sup>11</sup> 즉, <은혜사 백련암 지장보살도>에서 간취되는 포관의 화풍 변화는 그가 18세기 후반에 유행한 화풍과 도상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자기화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변화한 화풍은 또 다른 기준이 되어 19세기의 후배 화사들에게 전수되었다.

#### IV. 장흥사와 관련 기록

<장흥사 지장시왕도>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작품의 봉안처이다. 화기 덕분 에 이 작품이 장흥사 내원암에 봉안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장흥사라는 이름의 사찰은 한 군데가 아니다. 이전 시대와 현대를 통틀어 등장하는 장흥사라는 이름의 사찰은 총 세 군데이다.<sup>12</sup> 작품의 제작 연대와 화승 포관의 주 활동 지역을 고려했을 때 이 중 경주에 위치한 장흥사가 봉안처로 유력하다.

경주 단석산 장흥사는 기록으로만 이름이 남아있고 지금은 폐사되어 사라졌다. 단석산은 경주의 서쪽에 위치한, 경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신라 시대에는 중악(中嶽)이라고 불렸고 그 이후에는 단석산(斷石山) 혹은 월생산(月生山)으로 불렸다. 장흥사지는 단석산 동쪽, 현재의 방내저수지의 위치이다. 방내저수지에서 일제시대에 ‘월생산장흥사(月生山長興寺)’라는 명문이 적힌 기와가 발견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설의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다. 안타깝게도 장흥사에 대한 문헌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1933년 간행된『동경통지(東京通志)』를 제외하면 경주 지역 지지(地誌)에도 장흥사는 언급되지 않는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1720년에 간행된 동국대학교도서관 소장 『월생산장흥사고적기(月生山長興寺古蹟記)』(이하 『장흥사기』)가 장흥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거의 유일한 문헌 자료이다

<sup>11</sup> 통도사 백운암 <지장시왕도>의 수화승 지연(指演)은 포관의 <은혜사 지장보살도>의 제작에도 보조화사로 참여하였다. 임한과 화사들과 지연의 화맥에 관해서는 김형근, 『朝鮮後期 畫僧 指演에 관한 研究』, 『불교미술사학』 11 (2011), pp. 117-121 참조.

<sup>12</sup> 즉 경기도 여주 장흥사, 경상북도 경주 장흥사, 경상남도 거제 장흥사가 있다. 여주의 장흥사는 1705년 폐사되었고 거제 장흥사는 1980년대에 지어졌다.

(도 11). 『장흥사기』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자료로, 추후 더욱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일부 글자가 판독이 어렵고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이 책의 앞부분은 신라의 김유신(金庾信, 595~673)과 원효(元曉, 617~686)와 관련된 일화로 채워져 있다. 아래의 인용은 김유신에 관한 일화 중 일부이다.



도 11 월생산장흥사고적기, 1720년, 종이, 동국대학교박물관

김유신이 17세일 때 고구려와 백제가 나라의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삼국을 아우를 뜻을 품었다. 홀로 중앙산의 석굴에 들어가 하늘에 고하고 검술이 단련될 것을 빌었다. 4일 후 문득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기를, “이 독충과 맹수가 많은 곳에 어찌 홀로 있느냐?” 공이 말하기를 “나는 신라인입니다. 삼한(三韓)이 서로 침탈하지 않은 해가 없으니 바라건대 통일을 하고자 합니다. 장자께서는 저에게 방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은 묵묵히 있었다. 공이 간절하고 끊임없이 7 일동안 간청하니 이내 비법을 가르쳐주며 말하길, “삼가 명령되어 말을 전하지 말라.”고 하며 사라졌다. 공이 보검을 가지고 삼장(三丈) 높이의 바위를 베었는데, 갈라진 돌이 지금도 전하고 있어 이에 절 이름을 월생산 단석사라 하였다.<sup>13</sup>

말미에는 이 이야기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덧붙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와 『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합하여 축약한 형식이다.<sup>14</sup>

김유신의 일화가 단석산과 관련된 이야기인 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원효의 일화들은 이 산의 사찰인 단석사(斷石寺)를 조명하기 위해 언급되었다. 당나라의 한 절이 산사태로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신라의 원효가神通력으로 이를 미리 알고 큰 판자를 던져 위험을 알렸다는

<sup>13</sup> 『月生山長興寺古蹟記』金公年十七歲 見麗濟侵軼國疆 有并三國之志 獨中嶽石窟 告天祝之鍊劍 四日 忽有一老人 自無何以來日 此多毒獸之地獨處何也 公曰我新羅人也 三韓無歲不相侵故庶歡統一焉 長者爲我開示方術 老人默然 公息意不倦至于七日 乃授秘訣曰 慎勿妄傳言訖不見矣 公遂携寶劍試伐參丈之巖 而斷石傳存故仍改寺名曰月生山斷石寺也

<sup>14</sup> 『三國史記』41卷 列傳1 金庾信; 『新增東國輿地勝覽』21卷 慶州府

척판대(擲盤臺) 설화가 그 예이다. 목숨을 구한 천 명의 승려가 신라로 와서 원효의 제자가 되었는데, 월생산의 단석사가 바로 이들이 머무른 절 중 하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불광산의 척판암, 묘향의 척판대에도 전해지는 설화여서 실제로 단석사가 원효와 이러한 인연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장흥사기』에 수록된 일화들은 대부분 『삼국유사』, 『삼국사기』와 같은 잘 알려진 사료에서 인용한 것들인데, 오류도 눈에 띈다. 예컨대 이 책은 『삼국유사』를 인용하여 원효가 당의 지엄(智儼, 602-668)으로부터 수학한 후 신라로 돌아와 10개의 사찰을 지었는데, 그 중 하나가 중악산(中岳山)의 단석사라고 전한다.<sup>15</sup> 그러나 이는 원효가 아니라 의상(義湘, 625~702)의 이야기이며,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의상이 세운 사찰에는 단석사가 포함되지 않는다.<sup>16</sup>

이러한 오류는 당시의 사찰 사적기(事蹟記)의 찬술 경향을 토대로 이해해야 한다. 조선시대 후기에는 사찰의 연혁을 기록한 사적기의 찬술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폐허가 된 사찰들의 대규모 중창, 보수 불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 사적기의 편찬자들은 사찰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해 『삼국유사』와 같은 권위 있는 사료를 인용하거나 사찰의 창건 연대를 실제보다 이른 시기로 상정하곤 했다. 사찰과 관련이 없는 역사적 인물과 연결시키기도 하였다.<sup>17</sup> 『장흥사기』의 경우에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동국여지승람』이 인용되었다. 또한 신라의 김유신과 원효를 각각 단석산과 단석사와 연관 지어 언급함으로써 단석산의 역사성도 강조하였다. 의상의 일화를 원효의 일화로 잘못 인용한 것은, 편찬자의 실수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장흥사와 장흥사를 중건한 인물, 덕홍(德弘)을 조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으로 보인다. 『장흥사기』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장흥사를 1684년에 원효의 후신(後身)이라 불린 통정대부 덕홍(德弘)이 과거 원효가 장차 거찰(巨刹)을 세울만한 곳이라 했던 곳으로 옮겨 개창했다고 한다. 덕홍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직첩을 가진 고위 승려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언급할 <통도사사리탑비>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덕홍이 원효에 비견되었던 만큼 그가 중창 불사를 주도한 장흥사와 장흥사가 위치한 단석산 역시 원효와의 인연이 깊은 곳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장흥사기』의 후반부에는 사찰의 간략한 연혁과 부속 암자에 대한 소개, 불상, 불화, 집기 등 사찰이 소유한 물품들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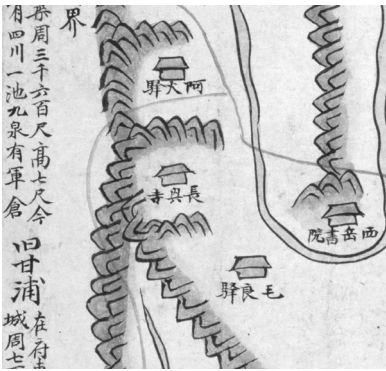
<sup>15</sup> 唐太宗貞觀六年卽新羅善德王之元年己亥三韓國師元曉入中國忝謁終南山智嚴和方得其妙音還于海東徧十刹而傳教○寺卽某一名曰中岳山斷石寺也

<sup>16</sup> 『三國遺事』4卷 5 義解 義湘傳教

<sup>17</sup> 오경후, 「朝鮮時代 寺刹事蹟에 관한 檢討」, 『경주사학』 24·25 (2006), pp. 358-359.



도 12 해동지도 권5 중 경주부, 1750년대, 종이, 47.0 × 30.5 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도 13 도 12의 세부

한 기록도 등장한다. 부속 암자 중에는 <장흥사 지장 시왕도>가 봉안되었다는 내원암도 포함되어 있다.

『장흥사기』를 제외하면 장흥사에 대한 의미 있는 기록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방지 중에서는 유일하게 『동경통지』에 언급되는데, 다른 정보 없이 ‘장흥사지(長興寺址)’라고만 나타나 있어, 『동경통지』가 간행된 1933년에는 이미 폐사되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동경통지』의 원본인 경주의 지방지 『동경잡기(東京雜記)』(1669년)에도 장흥사는 기록되지 않았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사찰은 여러 지방 지도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18세기 중반에 간행된 회화식 군현지도 집인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경주의 서쪽 경계 부근에 장흥사가 표시되어 있다 (도 12, 13). 현재의 단석산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이 지도에는 수많은 경주의 사찰 중 일부인 불국사, 분황사, 백률사, 기림사 등과 반월성, 첨성대와 같은 중요 사적지가 표시되어 있다. 『해동지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18세기의 『여지도(輿地圖)』, 『경주도회좌통지도(慶州都會左通地圖)』, 『비변사인방안지도(備邊司印方眼地圖)』, 그리고 19세기의 『광여도(廣輿圖)』에도 경주 지도에 장흥사가 등장한다. 즉 장흥사는 19세기까지도 존재했으며, 『동경통지』가 간행된 1933년 이전에 자취를 감추었던 것이다. 이 지도들은 각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방통치력을 강화하고자 한 국가의 주도로 제작되었다.<sup>19</sup> 주로 개인이 편찬하고 증보한 『동경잡기』 등의 경주 지방지가 장흥사를 언급하지 않는 데에 비해, 관찬 정책 자료로서 제작된 이 지도들에 장흥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 곳이 지도 제작자이자 수요자인 중앙정부, 혹은 지역 관청에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sup>18</sup> 최준, 『국역 동경통지』(경주문화원, 1990), p. 277.

<sup>19</sup> 정은주, 『조선후기 繪畫式 郡縣地圖 연구』, 『역사문화지리』 23/3 (2011), p. 123.

## V. 장흥사와 불국사의 관계

화기에는 화승들 외에도 이 불사에 참여한 비구들의 이름이 적혀있다. 대시주(大施主) 위성(偉性), 성초(聖初), 회신(會信), 증사(證師) 서봉당 도태(西峰堂道泰), 지전(持殿) 선옥(善玉), 송주(誦呪) 문연(文演), 승환(勝還)이 그들이다. 송주를 담당한 첫 번째 인물은 화기의 박락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중 주목해야 할 사람은 대시주 성초, 증사 서봉당 도태, 송주 문연이다. 이들은 앞서 언급한 1769년의 <불국사 영산회상도>의 화기에도 등장한다. 시주자의 목록에 서봉당 도태, 성초, 문연이 등장하는데, 서봉당 도태는 증명법사(證明法師)로도 이름을 남겼다.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화기 옆 목서에 도감(都監)으로 등장하는 담일(曇日) 역시 <영산회상도>의 시주자 담일(曇日)과 동일인물로 보인다. 즉 1764년 장흥사 불사와 1769년 불국사 불사에 모두 참여한 사람이 수화승 포관 외에도 여러 명이 더 있는 것이다.

이 중 서봉당 도태(혹은 서악당 도태西岳堂道泰)는 다른 문헌 자료들을 통해 생애와 업적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서봉당 도태는 통도사와 불국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고승으로, 1760년경 주석처를 통도사에서 불국사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sup>20</sup>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와 「대웅전중창단화기(大雄殿重創丹牘記)」에 따르면 그는 1760년대에 진행된 불국사 대웅전 중창 불사를 주도했다.<sup>21</sup> 포관이 <불국사 영산회상도> 불사에 참여하기 이전 통도사에서도 활동했음을 생각해보면, 불국사와 인연이 없던 포관이 다른 화파의 화승들과 함께 불국사 불사에 참여하게 된 것은 서봉당 도태를 통해서였을 가능성도 있다.<sup>22</sup> 또 다른 시주자들인 성초와 문연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불국사 혹은 장흥사에 주석하고 있던 승려들이었을 것이다.

<장흥사 지장시왕도>와 <불국사 영산회상도> 제작에 모두 참여한 서봉당 도태, 성초, 문연, 포관은 장흥사와 불국사 사이의 인적 교류를 보여준다. 장흥사에 대한 문헌 기록이 거의 없는 만큼 불국사와 장흥사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지만, 1706년 세워진 <통도사사리탑비(通度寺舍利塔碑)>의 비문은 두 사찰의 연결 지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통도사의 계단(戒壇)에는 신라의 자장(慈藏, 590-658)이 당나라에서 가져온 불사리가 모셔져 있다. 임진왜란 때 이를 금강산으로 옮겼다가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

<sup>20</sup> 이용윤, 「18세기 후반 대웅전 중창 불사와 후불벽 불화의 조성」, 『미술사학보』 50 (2018), p. 230. 임적 후에는 그를 기리는 <서악당대선사도태탑비(西岳堂大禪師道泰塔碑)>가 불국사에 세워졌다.

<sup>21</sup> 이용윤, 앞의 논문, p. 230

<sup>22</sup> 포관은 1759년에 제작된 통도사 대광명전 <비로자나불도>와 <석가모니불도>에 참여했다.

1604)의 뜻에 따라 다시 통도사로 가져와 계단을 중수하고 봉안하였다. <통도사사리탑비>는 1704·5년에 이루어진 이 중수 불사와 비의 건립을 기록하고 있는데, 장흥사를 증창한 덕홍이 『장흥사기』 간행 후 약 20여년 뒤에 쓰여진 이 비문에 ‘전총섭(前摠攝)’이라는 호칭의 시주자 중 한 명으로 등장한다.<sup>23</sup> 덕홍이 장흥사 증창 이후 어느 시점에 총섭이 되었고 통도사와도 인연을 맺은 것이다.

한편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 불사에 참여한 사찰들이 나열된다.

#### 별도로 부조한 절

불국사(佛國寺), 장흥사(長興寺), 원원사(遠願寺), 천룡사(天龍寺), 감로사(甘露寺), 용연사(龍淵寺), 용천사(涌泉寺), 영정사(靈井寺), 운문사(雲門寺), 적천사(積川寺), 천주사(天柱寺), 수암사(水岩寺), 대둔사(大菴寺), 영지사(靈芝寺), 선여사(船余寺), 장안사(長安寺), 축정사(竺井寺), 두류산 쌍계사(頭流山雙溪寺), 백천사(白泉寺), 영악사(靈岳寺), 대흥사(大興寺), 반룡사(盤龍寺), 남해사(南海寺), 용문사(龍門寺), 창녕사(昌寧寺), 용흥사(龍興寺), 경흥사(慶興寺), 범어사(梵魚寺)<sup>24</sup>

흥미롭게도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나열되는 불국사, 장흥사, 원원사, 천룡사는 모두 경주의 사찰들이다. 특히 장흥사가 불국사 다음으로 언급된다. 이 기록은 한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찰 중 하나인 통도사의 계단 중수 불사에 승려들과 재가신도들은 물론, 다른 지역의 여러 사찰들도 시주자로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된 경주의 사찰들이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흥사도 불국사 다음으로 언급될 만큼 크게 일조한 듯하다.

<통도사사리탑비>에 보이는 사찰 단위의 시주는 사찰이 하나의 경계 주체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음을 보여준다. 가깝게는 김해, 멀게는 해남에 위치한 절까지 참여한 이 불사에 한 지역의 사찰이 함께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일종의 지역 공동체를 구성했을 가능성도 보여준다. 경주 지역 사찰 외에도 위의 목록 중 경상북도 청도 비슬산에 위치한 용연사, 용천사, 운문사, 용문사도 한 지역의 사찰들이 함께 불사에 참여한 사례이다. 그러나 특히 경주 지역 사찰들은 공통적으로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온 불교 전통이 뿌리 깊은 곳들이었다. 또한 조선 초의

<sup>23</sup> 八道都摠攝資憲玄楫 嶺南摠攝自重 前摠攝善元德弘.

<sup>24</sup> 佛國長興遠願天龍甘露龍淵涌泉靈井雲門積川天柱水岩大菴靈芝船余長安竺井頭流山雙溪白泉 靈岳大興盤龍南海龍門昌寧龍興慶興梵魚右上各寺別扶助

역불정책과 임란 후의 경제적 폐허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사원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사찰계 결성, 지역 관청과의 연계, 서원의 속사(屬寺) 기능 같은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온 경험도 공유하고 있었다.<sup>25</sup> 장흥사와 불국사는 이러한 역사적, 지역적 맥락을 바탕으로 인적, 물적 교류를 해온 관계였을 것이다.

〈통도사사리탑비〉나 〈장흥사 지장시왕도〉보다 늦은 시기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장흥사와 불국사가 나란히 기록된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 소장 「1824년 이구수(李龜壽) 등 완문(完文)」은 두 사찰의 관계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sup>26</sup> 이 완문은 승청(僧廳)에서 경주 장산서원(章山書院)의 소속암자인 영적암(靈寂菴)의 공역(公役)을 감면해줄 것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경내 도승통(境內都僧統)’의 명의로 발급되고 기림사(祇林寺), 장흥사(長興寺), 장천사(章川寺)의 서기(書記)와 불국사(佛國寺)의 수승(首僧)이 서압(署押)하였다. 여기에서 ‘승청’은 승군(僧軍)들의 사무처인 의승청(義僧廳)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의승군들은 전란이 끝난 후 국가 조직에 편입되어 상설 조직화되었다.<sup>27</sup> 당시 국방은 물론, 국가의 공역도 담당했던 승군의 조발(調發)은 ‘도총섭(都摠攝)’, ‘총섭’ 등의 승직을 가진 고위 승려를 통해 이루어졌고, 자연히 승군은 법통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sup>28</sup> 의승청은 승군을 모집, 관리했던 군현의 감영이나 병영에 설치되어 있었고, 승군과 그들이 머물렀던 사찰은 그 지역 관청에 소속되어 각종 역을 담당하였다.<sup>29</sup> 앞서 본 「1824년 이구수 등 완문」에 기록된 기림사, 장흥사, 장천사, 불국사는 경주부 의승청에 소속된 사찰들이었을 것이다. 이는 기림사와 불국사가 과거 전란시 군사 주둔지 역할을 했었던 것,<sup>30</sup> 『장흥사기』의 간행에 승군의 직책인 승통(僧統)들이 노덕질(老德秩)로 참여한 것,<sup>31</sup> 통도사, 장흥사와 불국사의 불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덕

25 오경후, 「朝鮮時代 慶州地域 寺院의 數的 推移와 性格」, 『신라문화』 20 (2007), p. 217-222.

2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65 -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p. 551

27 양은용은 임진왜란 이후 외침 이후 상설 조직화된 의승군의 사례를 전주 송광사의 개창을 통해 조명하였다. 양은용, 「임진왜란 이후 佛敎義僧軍의 동향: 全州 松廣寺의 開創碑 및 新出 腹藏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4 (2003), pp. 127-139.

28 승군 조발 방식에 대해서는 박세연, 「17세기~18세기 전반 僧軍의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참조. 도총섭과 총섭 등은 고려시대부터 지속된 일종의 명예직이었지만 임진왜란 이후 실질적 권한을 지닌 승군의 통솔자로 그 성격이 변하였다. 사찰의 역을 면제해주는 것도 도총섭의 권한이었다.

29 佛國長興遠願天龍甘露龍淵涌泉靈井雲門磧川天柱水岩大菴靈芝船余長安竺井頭流山双溪白泉 靈岳大興盤龍南海龍門昌寧龍興慶興梵魚右上各寺別扶助

30 오경후, 위의 논문, p. 220

31 『장흥사기』 간행에 참여한 노덕질 명단에는 ‘전승통(前僧統) 담학(湛學), 두화(斗和)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노덕질인 상행(尙行)과 인휘(印輝)는 다른 기록 자료에 ‘승통(僧統)’으로 언급된 바 있다. 조선시대 승군적인 승장

흥과 서봉당 도태가 각각 고위 승군직인 총섭과 팔도도총섭을 지냈던 것,<sup>32</sup> 지방지에는 기록되지 않은 장흥사가 지방통치력 강화를 위한 관찬 지도에는 자주 등장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이 사찰들은 중앙관청, 혹은 군현의 관리 하에서 지역 내의 승려 조직과 이들의 공역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실질적인 통솔 권한을 가진 고위 승려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사와 사찰 간의 교류,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장흥사 지장시왕도>와 같은 작품들은 지역 화승들의 화맥이라는 관점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찰들 사이의 인적 교류, 특히 화승들의 화파 형성은 주로 사승관계와 이를 통해 전수되는 화풍을 통해 연구되어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맥 뿐 아니라 법맥(法脈)을 통해 화승들의 작업을 조명하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sup>33</sup> 다시 말해 화승들의 네트워크는 불화 제작이라는 소임을 넘어 불사의 주체가 되는 사찰과 지역, 승려 문중의 역학관계를 통해서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장흥사와 불국사, 그리고 통도사의 연결고리는 이에 더해 국가, 혹은 지역 관청의 승려 관리 정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 VI. 맺음말

조선 후기의 불화들은 화기를 통해 제작 시기와 화사, 봉안처가 분명하게 밝혀진 사례가 많다. 그리고 특정 화승을 중심으로 한 화파와 사승관계, 화파의 지역적, 양식적 특징은 오랫동안 불교회화사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어왔다. <장흥사 지장시왕도>를 그린 포관 역시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통해 임한의 제자로 시작하여 굽직한 불사를 주도한 수화승이 되기까지의 이력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승의 활동 범위는 특정 사찰이나 지역에 제한된 것이 아니었다.

(僧將, 총섭(總攝), 승통(僧統)으로 기록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자료집』 1 (불교사회연구소, 2012), pp. 874-926 참조.

<sup>32</sup> 서봉당 도태(서악당 도태)는 밀양 표충사의 『종정안록(宗正案錄)』 중 선교양종규정경팔도도총섭(禪敎兩宗糾正兼八道都總攝) 목록에 기록되어 있다. 불교사회연구소, 『밀양 표충사』 (불교사회연구소, 2015), p. 398.

<sup>33</sup> 주요 논문으로는 강영철, 「19세기 초 경기지역 華嶽·華潭門中の 畫僧」, 『동악미술사학』 5 (2004), pp. 155-162; 이용윤, 「退雲堂慎謙 佛畫와 僧侶門中の 後援」, 『미술사학연구』 269 (2011), pp. 71-101; 「조선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조선후기 통도사의 僧侶門中과 畫僧 任閑」, 『불교미술사학』 23 (2017), pp. 127-158; 「雪松門中 출신 畫僧 慈雲堂 指演의 활동과 助力者」, 『동악미술사학』 22 (2017), pp. 5-30 등이 있다.

다른 지역으로 초빙되거나 다른 화파의 화승들과의 협업도 이루어졌다.<sup>34</sup> 따라서 작품을 제작한 화승의 계보와 화풍과 더불어서 이 작품이 완성되어 봉안되기까지 참여한 사람들과 지역 공동체, 그 안에서의 인적 교류 역시 작품을 이해하는 맥락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발굴된 <장흥사 지장시왕도>를 화승집단의 일원으로서의 포관과 그의 화풍과 더불어 화기를 통해 드러나는 장흥사와 불국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왕실인사까지 참여했던 <불국사 영산회상도>와 <사천왕 벽화> 조성 불사에서 여러 명의 보조화승 중 한 명이었던 포관은 이보다 앞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진행된 장흥사의 불화 조성에서는 수화승을 담당했다. 포관이 스승 밑을 떠나 독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5년 이상 앞당겨진 셈이다. 한편으로는 두 사찰 모두에서 활동했던 화승이 불사의 규모에 따라 수화승이 되었다가도 다시 보조화승이 되는 등 그 역할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작품의 시주와 연화질로 등장하는 승려들은 지역 사찰들 간의 교류가 이 작품의 제작에 밑바탕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장흥사와 불국사의 인적 교류, 그리고 이들이 함께 참여한 <통도사사리탑비> 조성 불사와 19세기의 완문 자료는 이 두 사찰, 그리고 더 나아가 경주 지역의 사찰들이 여러 방식으로 연계되었음을 시사한다. 장흥사와 불국사의 경우 불사에 참여한 승려들의 교류와 공동체 형성에 화맥이나 법맥 뿐 아니라 고위 승려를 중심으로 운영된 국가의 승려 관리 체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화파와 사승관계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포관을 비롯한 불화승들의 생애와 활동 역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재조명할 수 있겠으나, 추후 연구로 미루어두고자 한다.

\*주제어(key words)\_지장시왕도(地藏菩薩圖, Ksitigarbha and the ten kings of hell), 포관(抱寬, Pogwan), 장흥사(長興寺, Jangheung monastery), 불국사(佛國寺, Bulguk monastery), 지역 공동체(地域 共同體, Local community)

■ 투고일 2019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9년 4월 6일 | 심사완료일 2019년 4월 28일 ■

<sup>34</sup> 정명희, 「18세기 경북 의성의 불교회화와 제작자 - 밀기(密機), 치삭(稚朔), 혜식(慧湜)의 불사(佛事)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4 (2017), p. 243.

## 참고문헌

『慶州都會左通地圖』.

『廣輿圖』.

『東京雜記』.

『備邊司印方眼地圖』.

『三國史記』.

『三國遺事』.

『新增東國輿地勝覽』.

『輿地圖』.

『月生山長興寺古蹟記』.

『海東地圖』.

강영철, 「19세기 초 경기지역 華嶽·華潭門中の 畫僧」, 『동악미술사학』5, 2004.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한국역대서화기사전』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_\_\_\_\_, 『한국역대서화기사전』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_\_\_\_\_,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한국 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김수영, 「19세기 경북지역 석가여래후불도 연구」, 『문물연구』20, 2011.

김정희,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 일지사, 1996.

\_\_\_\_\_, 「18世紀 地獄系 佛畫의 研究」, 『불교미술사학』3·4, 1997.

\_\_\_\_\_, 「朝鮮後期の 佛畫 - 特徵과 樣式, 그리고 研究課題」, 『불교미술사학』5, 2007.

\_\_\_\_\_, 「조선 후기 운문사의 佛事와 불화」, 『강좌미술사』50, 2018.

김형곤, 「朝鮮後期 畫僧 指演에 관한 研究」, 『불교미술사학』11, 201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동산문화재분과」, 문화재청, 2013.

박세연, 「17세기~18세기 전반 僧軍의 확대와 調發방식의 변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불교사회연구소, 『호국불교자료집』1, 불교사회연구소, 2012.

\_\_\_\_\_, 『밀양 표충사』, 불교사회연구소, 2015.

손성필, 「조선시대 불교정책의 실제: 승정체제, 사찰, 승도에 대한 정책의 성격과 변천」, 『한국문화』83, 2018.

양은용, 「임진왜란 이후 佛教義僧軍의 동향: 全州 松廣寺의 開創碑 및 新出 腹藏記를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4, 2003.

오경후, 「朝鮮時代 寺刹事蹟에 관한 檢討」, 『경주사학』24·25, 2006.

\_\_\_\_\_, 「朝鮮時代 慶州地域 寺院의 數的 推移와 性格」, 『신라문화』20, 2007.

유경희, 「조선 말기 흥천사와 왕실 발원 불화」, 『강좌미술사』49, 2017.

- 이선영, 「18세기 화사 입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용윤, 「退雲堂愼謙 佛畫와 僧侶門中의 後援」, 『미술사학연구』 269, 2011.
- \_\_\_\_\_, 「조선후기 嶺南의 佛畫와 僧侶門中 연구」, 홍익대학교대학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5.
- \_\_\_\_\_, 「雪松門中 출신 畫僧 慈雲堂 指演의 활동과 助力者」, 『동악미술사학』 22, 2017.
- \_\_\_\_\_, 「조선후기 통도사의 僧侶門中과 畫僧 任閑」, 『불교미술사학』 23, 2017.
- \_\_\_\_\_, 「18세기 후반 대웅전 중창 불사와 후불벽 불화의 조성」, 『미술사학보』 50, 2018.
- 장경준,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승려 등재 배경과 그 양상」, 『대동문화연구』 54, 2006.
- 정명희, 「18세기 경북 의성의 불교회화와 제작자 - 밀기(密機), 치삭(稚朔), 혜식(慧湜)의 불사(佛事)를 중심으로」, 『불교미술사학』 24, 2017.
- 정은주, 「조선후기 繪畫式 郡縣紉地圖 연구」, 『역사문화지리』 23/3, 2011.
- 정희선, 「화승 입한파(任閑派) 불화의 연구 불화의 연구」, 『강좌미술사』 26/2, 2006.
- 차용길, 「조선후기 산성방어체제의 운영」, 『중원문화재연구』 4, 2010.
- 최준, 『국역 동경통지』, 경주문화원, 199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65 -경주 옥산 여주이씨 독락당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 한상길, 「朝鮮後期 寺刹契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한정호, 김지현, 「통도사 금강계단의 변천과 浮彫像의 도상 고찰」, 『신라문화』 50, 2017.

## 국문초록

필른 동아시아박물관 소장 〈장흥사 지장시왕도〉(1764년)는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조선 후기 기년명 지장시왕도의 일례이다.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수화승 포관은 18세기에 경상도를 중심으로 활동한 화승으로, 초기에는 화승 임한파의 일원이었으나 이후에는 자신의 화승집단을 이끄는 수화승으로 활동하였다. 〈장흥사 지장시왕도〉는 그가 수화승으로 참여한 첫 번째 작품으로, 포관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일찍 스승으로부터 독립하여 수화승의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작품이 봉안된 장흥사는 경주 단석산에 위치했던 사찰이다. 임진왜란 이후 무너진 절을 17세기 말에 승려 덕홍(德弘)이 중건하였으며, 1933년 이전에 폐사되었다. 18세기의 장흥사는 사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사적기를 간행하여 역사적 인물인 김유신, 원효와의 인연을 드러내기도 했다.

〈장흥사 지장시왕도〉의 화기에 기록된 화승들과 시주자들은 장흥사와 불국사 사이에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사찰들이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연계되었음을 〈통도사사리탑비〉와 19세기의 완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장흥사 지장시왕도〉 조성과 같은 불사에 있어 화승들의 화맥(畫脈)과 더불어 지역 사찰들 사이의 네트워크, 그리고 국가의 승려 관리 정책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 Ksitigarbha and the Ten Kings of Hell from Jangheung Monastery

Kim, So-yeon\*

The *Ksitigarbha* and Ten Kings of Hell from Jangheung Monastery at the Museum for East Asian Art, Cologne (Museum für Ostasiatische Kunst Köln), painted in 1764, has never yet been revealed to the public. The head monk-painter for this work was Pogwan, who was active in the 18th century in the Gyeongsangdo area. He started his career as a member of the monk-painter Limhan's workshop, and later became a head painter with his own workshop. The 1764 *Ksitigarbha* and *Ten Kings of Hell* is his first work as a head painter, indicating that Pogwan became an independent painter with a workshop earlier than previously known.

Jangheung Monastery was situated at Danseok Mountain in Gyeongju. The monastery was first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and rebuilt in the late 17th century by monk Deokhong. It was finally shut down sometime before 1933. In the 18th century, the monks of Jangheung monastery tried to elevate its status by publishing the history of the monastery that publicized its connections with historical figures such as Kim Yu-sin and Wonhyo.

The record of monk-painters and donors who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painting reveal that exchanges of human resources existed between Jangheung Monastery and Bulguk Monastery. Moreover, inscriptions on the Stele of the Tongdo Monastery Stupa, and a 19th century *Wanmun*, a governmental document that approve reduction of labor for Buddhist monasteries in the Gyeongju area prove that the monasteries were associated with others for diverse purposes. This implies that the relations between monk-painters, networking of regional monasteries, and governmental policy regarding monks were all important factors in completing large Buddhist works like this painting.

---

\* Ph.D. Candidate in UCLA